



해양산업 발전과 문화 확산위한 CEO클럽 출범

부산지역 기관 및 단체장, 전국 해양CEO 참여

해양수산업 발전과 해양문화 확산의 등대지기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해양협·MITO)의 구심축이 될 '해양CEO클럽'이 10월13일 공식 출범했다.

해양협은 이날 낮 1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해양·수산업계 CEO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CEO클럽 결성식' 및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서 김종렬(부산일보 사장) 해양협 대표 이사장이 해양CEO클럽의 조기 활성화와 조직 용화를 위해 초대 회장에 뽑혔고, 강의구 코스모스쇼핑(주) 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해양CEO클럽에 적극 참여한 전국의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업계 CEO들께

감사드린다"며, 클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해양협이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엔진 역할을 하는 등 해양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해양CEO클럽은 앞으로 해양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업계 CEO들 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강연회·세미나·심포지엄 개최, 지식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협 발전을 기원하고 해양CEO클럽 결성을 축하한 뒤 '고부가가치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부산항과 해양수산 분야 지원 및 육성을 약속했다.

제15차 세계 조선소 대표자회의 부산에서 개최

세계 조선업계의 거물들이 다음달 초 부산에 총집결한다. 부산으로서는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조선공업협회에 따르면 제15차 세계 조선소 대표자회의(JECKU)가 11월 1-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미국의 조선소 최고경영자(CEO)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연례회의인 JECKU는 지난 1988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통상마찰 해결을 위해 양자 회의로 시작된 이래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이 차례로 참여하면서 세계 조선업계 대표자회의로 성장했다. JECKU는 일본(J), 유럽연합(E), 중국(C), 한국(K), 미국(U) 등 세계 5대 조선 강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합성한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공업협회장인 김진완 삼성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 CEO들이 모두 나설 예정이다.

일본에선 다카시 니시오카 일본조선공업회 회장 등이 참석하며, 유럽 내 세계최대 크루즈 제조사인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의 안토니니 회장도 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세계경제 전망을 토대로 한 해운 및 조선시황 △신조선 수급예측 △선박의 공통구조규칙(CSR) 등 기술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조선업계 입장 등이 주요 논의된다.